

< 8월에 드리는 선교편지 >

말라위의 건기시즌은 참으로 험난합니다. 유난히도 금년의 건기 시즌은 많은 먼지와 황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지속된 릴롱웨 도로공사와 곳곳마다의 건축현장의 영향일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여파로 곡물을 비롯해서 모든 물가가 급격히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선교지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교현장에서 살아가는 현지인의 체감물가는 어떤 것인지 이방인으로서 그 체감 물가를 그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 한번도 사과를 먹어보지 못한 이들

지난 4월 청소년을 데리고 말라위 분다 기도산에 올라갔을 때 사과를 한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에 꼭 사과파티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말라위 날씨가 겨울이라 사과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아내와 함께 우유와 빵, 사과를 몽땅 사왔습니다. 사과와 빵은 릴롱웨 타운 슈퍼마켓에 있는 것 거의 쓸어 오다시피 하였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 현지인들은 쉽게 살수가 없습니다. 우유 150ml한 팩에 종전에는 100과차였지만 지금은 3배이상 오른 450과차이다. 오늘 산정상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시간 반 동안 산상 강의를 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두고 하니 집중도 잘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배불리 먹고 마음껏 기도하니 행복합니다. 오늘 제자훈련 내용이 구원자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 행복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6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은혜와 진리와 배부름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맛있게 사과와 빵을 먹었지만 몇 명의 청소년은 아껴서 집에 가지고 가려던 사과가 산정상에서 공처럼 굴러 내려 오는 사과가 내발에 걸려 사과를 잡을 수 있었지만 삼분의 일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추억의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 재봉학교 오픈

그동안 염원이었던 재봉학교가 두 분의 후원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모대학 총장님과 캐나다에 사시는 송사장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지금 총9대로 2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재봉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어머니들도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잘 따라하며 아내도 수강생으로 열심히 참여 하고 있습니다.

이곳 말라위 복음센터에 직업학교가 세워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태양열전기로는 아직 부족하여 컴퓨터학교는 운영되지 않지만 재봉학교는 지난 주부터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코스를 6개월 단위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아마 내년 2월경에 한국에서 재봉 선생님이 오셔서 이곳 현지인들에게 좀 더 특별한 과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 명도 포기 않고 열심히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재봉학교를 졸업하면 재봉틀 한 대씩 사주어서 그들 에게도 재봉직업의 현장으로 재봉선교사로 파송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동네 사각지대에서는 곳곳이 밀주를 만들어서 팔고 있고 여러 곳에서 한국의 고스톱치는 아줌마처럼 카드로 게임을 하는 동네 아낙들이 눈에 띄어 마음이 아픕니다.



- 100채 빌리지 집 짓기 운동

아프리카 말라위는 70년대의 한국처럼 새마을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공동체들이 모여 집 짓기와 지붕 개량사역을 해주기를 원했지만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은 데다 대상자들이 대부분 할머니와 과부들 그리고 찢어지게 못사는 분들이라 할 수 없이 우리 LDM리더들이 목수와 빌더로 팀을 구성하여 지붕개량 및 외곽 시멘트 스케이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 지어 주는 당사자들도 너무 무관심이어서 일하는 팀들 식사 준비와 허드렛일도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한두 집 씩 짓다 보니 너무 많은 현지인들이 요구하여 일단 100채 중에 10채를 전체적으로 지원 하려하였으나 20여채를 함석 지붕 및 외벽 시멘트지원 위주로 이리 남중교회의 어느 권사님의 정성 어린 후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두마을에 걸쳐 센터가 있는 차파타 빌리지와 분다산 마을위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포근한 잠자리와 안식처를 제공하게 되어 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이렇게 해서 지은 집문 입구에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16장31절 말씀과 함께 하여 집에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 은혜가 충만한 제자훈련

어느 덧 제자훈련이 6주차 교육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현지인 평신도 교육위주로 시행하고 또 매주 토요일에는 리더쉽과 청소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100여명의 훈련을 하는 저를 위주로 한 리더쉽도 바쁘지만 빵과 계란등 간식과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도 매우 바쁩니다.

그래도 이렇게 훈련을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곳 선교지에서 가장 아깝지 않고 뿌듯한 사역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영혼들 모두 귀하지만 그래도 가장 변하기 쉬운 청소년들이어서 더욱 의미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10주나 12주의 훈련을 마치고 나면 장학금 지급 및 노트와 연필 그리고 머리 깎기 봉사를 해줍니다. 종전에는 노트한권이 100과차도 체 안되었지만 이제는 한 권 값이 거의 990과차를 받고 있어 이러한 학용품 후원도 날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공산품이 너무 올라서 말라위에서의 공산품 구입은 당분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캐나다나 한국이 물가가 비싸다고 하지만 이곳 말라위 물가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비싼 편에 속합니다. 아마 이 영향이 코로나와 전쟁여파에다 말라위 화폐(과차)가치의 절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가 말라위 대통령 선거인지라 경제와 물가가 더욱 걱정이 드는 것도 저만의 우려는 아닌 듯싶습니다.



<기도제목>

8월의 기도제목

1. 7월부터 시작된 제자훈련이 어느덧 6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자교육 즉 청소년제자훈련 및 목회자, 평신도제자훈련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마치게 하옵소서.
2. 8월 둘째주 부터 시작된 직업훈련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잘 수료하여 재봉

교육을 통해 직업창출을 갖게 하옵소서

3. 새마을운동 집 짓기 사역을 분다 마을 과 차파다 마을을 위주로 20여채를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4. 태양광시설보수와 에스컴(전기) 시설이 하루속히 보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5. 제자교육 및 옥수수배달에 필요한 차량구입을 허락하옵소서.
6. 시설 장비들이 고장이 나고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라위 민경화/김홍희선교사드림